

네 남매의 애달프고 유쾌한 가족극 남편의 불륜, 복수... 고도의 심리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 첫 회 23%

‘부부의 세계’ 2회 만에 10% 돌파

KBS 2TV · JTBC
새 드라마 힘찬 출발

KBS 새 주말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20%대 시청률로 순조롭게 맞을 올렸다.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계 KBS 2TV에서 방송된 ‘한 번 다녀왔습니다’ 1회는 19.4%~23.1%로 집계됐다.

내용이나 스타일은 전통적인 KBS 주말 가족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소 푹수처럼 보이는 인물들의 대사와 연기가 큰 웃음을 자아냈다.

‘황금빛 내 인생’의 천호진, ‘하나뿐인 내편’의 차화연 등 KBS 주말극에서 활약한 베테랑 연기자들이 한 드라마에 모이는 모습도 보는 재미를 안겼다.

전체적으로 코믹한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전날 방송에선 막 결혼식을 마친 막내 딸이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적반하장으로 바로 파혼까지 당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등 최근 KBS 주말극이 작품성이나 시청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해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편이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앞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해 세대 간 시각차를 어떻게 유쾌한 톤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지난 27일 첫 방송부터 6%대로 스타트를 끊은 JTBC ‘부부의 세계’는 2회에서 9.979%(이하 유료 가구)를 기록, 사실상 10% 벽을 깼다.

전날 방송된 2회는 지선우(김희애 분)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됐다. 친구 설명속(채국희)을 매개로 바람을 피운 남편의 불륜 상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믿었던



‘한 번 다녀왔습니다’



‘부부의 세계’

남편에게서 끝내 마음의 문을 닫는 모습이 그려졌다.

‘부부의 세계’는 배우들의 열연이 감각적인 연출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몰입도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과 그에 대한 복수는 물론 자극적인 소재지만, 이를 막장 드라마처럼 다루지 않고 고도의 심리극처럼 그려 세련된 지정극을 보는 듯하다.

영국 BBC 드라마 ‘닥터 포스터’의 리메이크작인 ‘부부의 세계’는 김희애가 연기한 지선우의 시선을 중심으로 전개됐

다. 잘 나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그는 변변한 작품 없는 영화감독 남편과 아들을 먹여 살려온 인물이다.

1회는 빠른 속도로 극이 전개됐다. 가정과 일, 모든 쪽에서 완벽한 삶을 살던 지선우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선 배신감에 분노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많은 것이 우연에 기댄 이야기는 작위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선우가 남편의 머플러에서 발견한 머리칼과 단 한 올로 외도를 의심하는 건 드러

마의 기본 때때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맡은 환자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을 길에서 목격하는 건 지나친 우연이다. 때마침 이 환자는 신경안정제 처방을 요구하고 있어 선우가 남편의 미행은 불이데 적합한 인물로 등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김희애의 연기로 매워진다. 김희애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느끼는 행복부터 시작해 의심과 믿음 사이 혼란, 절망과 분노 등 극단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보는 이로 하여금 단박에 극에 빠져들게 한다. /연합뉴스

홍진영, 신곡 ‘사랑은 꽃잎처럼’ 4월 발매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다음 달 신곡과 함께 돌아온다. <사진> 소속사 IMH엔터테인먼트는 홍진영이 다음 달 1일 ‘사랑은 꽃잎처럼’을 발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3월 발매한 정규 1집 앨범 ‘라츠 오브 러브’ (Lots of Love) 이후 약 1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노래다.

2007년 걸그룹 스완으로 데뷔한 홍진영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2009년 ‘사랑의 배터리’를 발표해 히트시켰다.

이후 ‘부기맨’, ‘산다는 건’, ‘사랑의 와이파’, ‘엄지 척’ 등을 발표해 인기를 높였다.

재치 있고 유쾌한 캐릭터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다수 광고 모델로 활약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존 소속사를 떠나 1인 기획사인 IMH를 설립했다. /연합뉴스



‘밥블레스유2’ PD 코로나19 확진...제작진 자가격리

올리브 예능 ‘밥블레스유2’ P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작진과 출연진이 모두 자가격리와 검사에 들어갔다.

29일 방송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CJ ENM 직원은 ‘밥블레스유2’ 주니어급에 속하는 PD다.

해당 PD는 지난 18일 미국 휴가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여간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CJ ENM 사옥 전체가 임시 폐쇄되고 방역 조치가 진행됐으며, 안에 머무르던 직원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밥블레스유2’는 송은이, 김숙, 박나래, 장도연 등 여성 예능인들이 출연하는 ‘푸드 테라피’ 예능이다. 이들은 이날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진선규, 음악영화 ‘너와 나의 계절’서 고 김현식 연기

배우 진선규가 음악영화 ‘너와 나의 계절’에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열줄라이엔터테인먼트가 28일 밝혔다.

영화 ‘결갑스’의 정다원 감독이 연출하는 첫 번째 음악영화로, 진선규는 한국의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가수 고 김현식을 연기한다.

김현식은 1980년 데뷔해 ‘내 사랑 내

결에’, ‘비처럼 음악처럼’, ‘사랑했어요’ 등의 히트곡을 남기고 1990년 서른셋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측은 “진선규가 여전히 많은 뮤지션에게 영감을 주고 음악을 통해 살아 숨 쉬는 김현식을 어떻게 연기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영화는 오는 8월 촬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블루 플래닛 55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양코르 MBC 다크프라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최강 1교시
1	0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위키탈출 넘버원 스페셜	00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더 플래닛스	40 MBC PICK X 복면가왕(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온드림스쿨 스페셜	0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뉴스브리핑
3	0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람(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00 차종우돌 만국 유망기(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대화의 희열 스페셜 (아이유 편)	00 5 MBC 뉴스 30 3.1절 특집 다크멘터리 향정 세 어머니 이야기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6	00 6시 내고향 (7000회 특집)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아무도 모른다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05 배철수 쎄	
11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고립남(재)	00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0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55 다크인사이드(재)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더 라이브(재)	4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재)	20 나이트 라인 50 양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EBS가 함께합니다 3부	17:35 페파 피그(재)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3:50 ABU 어린이 드라마 특선	17:45 세미와 매직큐브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40 마사와 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45 개구쟁이 스타프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9:00 형사 가제트
08:00 당동당 유치원	15:0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19:30 최고대 호기심탐지
08:30 출동! 슈퍼윙스	15:10 꼬마버스 타요(재)	19:45 자이언트 팽TV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20:00 세계의 눈
09:00 픽시	15:40 뽀롱뽀롱 뽀로로(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페파 피그	15:5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30 한국기행
1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16:10 픽시(재)	<소쿠리에 담아 볼 1부 금오도, 바람 타고 오나 볼>
09:4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1~2부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2:00 EBS 정오뉴스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2:40 아생의 세렝게티
12:10 EBS가 함께합니다 3부	17:00 EBS 뉴스	23:30 경이로운 지구
	17:20 출동! 슈퍼윙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0일(음 3월 7일 壬申)

☎ 010-9790-8237

<p>36년생 무의식적인 대응이 향후의 위상을 좌우 해버릴 수도 있다. 48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60년생 생산성이 없다면 중단하는 것이 낫다. 72년생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차제에 분명하게 분리해 두는 것이 편하다. 84년생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96년생 상호간의 심리 저변에 갈등하는 대국이다. 행운의 숫자 : 12, 50</p>	<p>42년생 분능적이라면 위험해지는 법이다. 54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66년생 효험 있는 약은 입에 쓰고 도출되는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78년생 실존적 방안에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90년생 수용한다면 완만해질 수 있겠다. 02년생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96</p>
<p>37년생 시각적으로만 평가하려 들지 말자. 49년생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난처한 양태이다. 61년생 고통이 따를 것이니 단단히 각오 해야겠다. 73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정지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85년생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97년생 아는 바를 하더라도 확인과 점검을 습관화 하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05, 64</p>	<p>31년생 노력한다면 자신이 염원해 왔던 바를 얻게 된다. 43년생 재난은 무지와 방심에서 비롯된다. 55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67년생 커다란 행운이 보이지는 않지만 대고도 없느니라. 79년생 활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91년생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3, 71</p>
<p>38년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불 일이다. 50년생 적절한 형태의 사전 예방이 최상이다. 62년생 아직 미숙함으로 인해서 불안전하다. 74년생 주변을 너무 의심하다보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법이다. 86년생 가까운 이들의 평을 따져 보면 유익할 것이다. 98년생 의외의 일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85, 81</p>	<p>32년생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44년생 양호한 결과를 낳을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해 나가자. 56년생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건의 실행이 더 낫다. 68년생 신경 써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80년생 중요한 것을 두루께 될 것이니 실수 없어야겠다. 92년생 한정된 대상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동세이다. 행운의 숫자 : 40, 92</p>
<p>39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51년생 겉모습과 실제의 형편은 확연한 차이가 있느니라. 63년생 원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5년생 단체가 보이니 확실히 개선하고 불 일이다. 87년생 일상의 체계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 99년생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18, 98</p>	<p>33년생 다양성의 상황 하에서 활로가 보인다. 45년생 안정성에 관한 평가 작업을 해야 할 시기이다. 57년생 정밀함과 구체성은 대국을 이루는 요체로 작용한다. 69년생 지금 미진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81년생 효율성을 견지하라. 93년생 승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6, 55</p>
<p>40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만 유지된다. 52년생 예견의 정확도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64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해 보는 것도 괜찮다. 76년생 대범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연함이 요구된다. 88년생 호기가 주어져서 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년생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롭게 빛나리라. 행운의 숫자 : 27, 53</p>	<p>34년생 당장 할 수는 있으나 탄력을 받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 46년생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중차대함을 간과하게 된다. 58년생 선택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 되겠다. 70년생 반갑기는 하겠지만 부담스러움을 동반하고 있다. 82년생 행위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 94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66</p>
<p>41년생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보인다. 53년생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주된 것의 손실이 있을 수다. 65년생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77년생 받아들인다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89년생 빠짐없이 자세히 살펴 볼 일이다. 01년생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88</p>	<p>35년생 풍성한 결실의 밑거름이 되리라. 47년생 명확한 정수가 될 것이니 무시하지 말라. 59년생 개척 정신을 발휘한다면 크게 활로를 열릴 것이다. 71년생 필요 이상의 것은 번거로운 뿐이니 실질적인 대응이 옳다. 83년생 이대로는 아니니니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95년생 원칙을 중시해야 체계가 설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4, 91</p>